

##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언어 습관과 말 센스

성경말씀: 약3:1-12

지난 주 좋은 사람들의 좋은 교회, 과거와 단절할 줄 아는 사람, 성경 신자, 인간적인 사람, 교회를 잘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 상식과 교양 매너가 있는 사람

오늘은 '상식과 교양과 매너가 있는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 >

특히 인간생활의 기본인 말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언어 습관, 말 센스

지난주일 교회 오기 전에 내 처와 문제가 생겨서 말다툼, 아내는 교회에도 오지 못하고 둘 다 3일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 늘 그러하듯이 아내는 내게 문제가 있으니 고쳐야 한다. 특히 말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부부가 다툼 때 남편이 말로는 아내를 이기지 못한다. 날이 갈수록 말로 설득하기가 더 힘이 든다.

아내의 지적: 나의 문제: 목사요 교사이므로 가르치는 대로 더 잘해야 한다는 주문,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 부부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내도 스마트폰을 하므로 서로 말을 하는 시간이 적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에 같이 걸으러 나가곤 한다.

다툼의 이유: 선거 이후로 요즘은 나라의 앞날이 크게 걱정이 된다. 그러나 목사이기에 가능한 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짬을 내서 유튜브와 뉴스 등을 통해 자세한 사실을 습득해서 인지하고 있다.

어떤 분이 보내준 글, 국민들에게도 등급이 있다.

<같은 하늘아래, 같은 공기로 숨을 쉬지만 국민들의 격이 다르다>, 민족, 백성, 시민

1. 종북/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로 바뀌어도 잘 살수 있다고 보는가?
2. 나는 방관해도 누누가가 막아 준다고 보는가?
3.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상황이 목전에 와 있다.
1. 흔히 말하는 민초는 무지렁이로 글자도 잘 모르고 폰돈에 약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복종 잘하는 국민을 말한다.
2. 다음 등급은 백성이다. 글자도 알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지만 속으로만 불만을 갖고 있고 표현 하지는 못하는 계층이다. 시키면 묵묵히 따른다.
3. 그 다음은 시민이다. 이들은 불의에 저항하고 외치고 행동한다. 그리고 대안도 제시하고 방안도 찾아내는 계층이다.
4. 나는 민초인가, 백성인가, 시민인가?

요즘 나는 시민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가?

그런데 부부가 한 마음으로 시민이 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실천 문제에 들어가면 참으로 쉽지 않다.

얼마만큼 해야 하는가? 주로 이런 문제와 교회 문제로 나와 아내는 가끔 다툼다.

이런 일로 감정이 폭발하면 참다가 결국 내가 먼저 큰소리, 아내도 지지 않고 더 큰소리, 이리곤 나면 인생이 슬퍼지고 참 힘이 든다. 그래도 결국은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일이 풀리므로 자세한 설명을 몇 차례 듣고 잘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다시 생활한다. 83년 결혼, 결혼한 지 37년이 되었는데도 다투곤 한다. 서로 생각이 다른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상대에게 맞지 않는다.

참으로 한 번에 해결하기가 어렵다. 혀 암 이야기

애국이든 교회 일이든 집안의 리더인 내가 바르게 말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아마 이런 문제가 거의 모든 가정에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말 사용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한다.

### 교회 혹은 성도에게도 말 문제가 있다

구원받으면 곧바로 천사가 되지 않는다. 야고보서는 교회 안에 혹은 성도들 안에 내재하는 문제들을 보여 준다. 고통과 고난을 참지 못하는 것, 차별대우 하는 것,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 등, 그 결과 구원받은 사람이 수치의 대상이 됨. 야고보는 초기 사도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 거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구약성경을 인용하며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지 가르친다. 야고보서는 로마서처럼 상세하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서 어떤 행위가 나와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실제적인 생활 지침서이다.

3장에는 말 문제, 혀 문제가 나온다.

야고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약1:19; 26; 2:12).

약4:1, 11-12를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말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였다.

#### 말이란 무엇인가?

1. 모든 창조물 가운데 사람만 말을 한다.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말을 못하면 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영이시다(요4:24), 말씀이다(요1:1). 예수님의 오병이어 설교,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 “내 말은 영이다, 생명이다”(요6:63),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롬10:17). 인간이 인간인 것은 말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2. 말에는 파위가 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온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원래 말은 의로운 용도로 사용될 때 파위를 낸다. 그런데 말을 잘못하면 죄에 빠진다.

루시퍼의 말(사14:13-14), 사탄의 말, 이브의 말(창3:1-5)

어느 면에서 말이 곧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살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말의 권능: 찬양, 기도, 선포, 권면, 말하는 능력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능력

말의 권능을 당연한 것으로 받으면 안 된다.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잠18:21).

3. 그래서 말에 의해 우리는 의롭게 되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한다(마12:34-37).

#### 간단한 강해

1절: 선생이 되지 말라, 그 모임에서는 다들 가르치는 자가 되기 원하였다. 어쩌면 권위, 명예 그러나 말하고 가르치는 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교사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눅12:47-48). 가르친 대로 안 하면 위선자,

목사는 목사 겸 교사(엡4:11), 목사의 임명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딤후5:22)

교회 학교 교사, 교회 리더도 마찬가지(초신자는 안 된다 딤후3:6)

KJB 진영 교회들도 비슷한 문제: 질서가 없고 말을 듣지 않는다.

2절: 우리는 다 실수 할 수 있다.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말에서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말에서 실수하지 않으면 아무 죄가 없는가?(완전한 사람) No! 대개 말이 행동을 가져온다.

3절: 말의 재갈, 말을 부리기 위하여 아가리에 가로 물리는 가느다란 막대

4절: 배의 키

재갈과 키는 반대되는 힘(본성, 바람)을 이기고 말과 배를 제어한다. 강한 손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 내부의 죄, 외부의 압력, 역시 강한 분이 있어야 한다(성령님).

제어되지 않은 말과 배는 인명 및 재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말도 마찬가지

말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잠18:21; 시141:3-4).

5절: 혀는 불이다. 작지만 큰 물체를 태운다. 산불 조심

6절: 혀는 불법의 세계(세상의 불법이 작게는 혀 안에 다 들어 있다)

거짓말(진화론), 중상모략, 비방, 거짓 고소, 사기, 기만, 신성모독

온 몸을 더럽힌다: 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데가 없다.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인다: 인생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다: 계헨나 지옥은 불구덩이, 악한 일을 일으키는 혀는 원래 거기 출신이다.

7절: 혀는 위험한 짐승 같다. 심지어 짐승들은 길들일 수 있다.

사자, 호랑이, 코끼리, 돌고래, 앵무새, 독수리 등

8절: 그러나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 악이요 독이다(롬3:13).

대화 속에 독이 스며들면 몰래 퍼져 많은 사람을 죽인다.

짐승을 길들이면 일꾼이 된다. 불을 제어하면 좋은 일을 한다.

그런데 혀는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되지 않는다. 그대로 두면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다(6).

9절: 한 혀로 하나님 찬양, 동시에 사람 저주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짐(창1:26-27).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다. 인간은 고귀하다.

10절: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 그래서 안 된다.

11절: 샘의 특징, 한 맛을 낸다.

12절: 나무도 마찬가지로, 사과나무는 사과를 낸다.

혀는 기쁨을 준다(나무처럼).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시1)

예수님(사50:4), 좋은 열매는 좋은 뿌리, 좋은 물, 성도에게는 좋은 말씀

샘은, 나무는 줄곧 같은 것을 낸다. 그러므로 우리의 혀도 같은 것을 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영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

대개 혀의 문제는 마음에 있다(약3:14; 마15:18; 잠4:23).

혀를 잘 관리해야 한다.

###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의 상관관계

1.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은 모두 의로운 말이며(사45:23) 의로운 말은 사람을 책망해서 선을 이룬다(미2:7). “내 말들이 곧바르게 걷는 자에게 선을 베풀지 아니하느냐?”
2.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룰 때만 의롭다(골4:6). ‘소금으로 간맞추어 은혜롭게’
3. 하나님의 능력은 선한 자의 말을 통해 활동한다(눅21:15). 그래서 위력이 있다(욥6:25). 설교
4. 악한 자의 악한 말은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딤후2:17). 그들의 말은 궤양처럼 파먹는다. 이단 어떤 때는 헛말, 악한 말도 쏟아져 나온다(26). 너무 오래 가면 안 된다.
5. 회개도 말로 하는 것이다(7:20). 그 결과 욥은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가짐
6. 복음 선포도 말로 한다. 미디어 선포도 말로 한다. 혀에서 나온다.
7. 그런데 화를 내며 악한 말을 쏟아 낸다. 다 혀에서 나온다.
8. 그래서 안 된다. 약3:10-12

### 실제적인 지침

이번 주에는 말로 글로 하나님과 대화해 보자. 또 가정 생활을 해 보자.

말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

내 아내가 들어보고 읽어보라고 권한 것, 책 <말 센스>(저자 셀레스트 헤들리,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말 센스), 베테랑 방송인, TED의 대화 강연은 1300만 회 조회, 유튜브에는 <대화의 신이 되어 보자>에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프롤로그: 이 책에서 저자가 독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상대와 눈을 마주쳐라”, “흥미로운 주제들을 얘기하라”, “들은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호응해줘라”와 같은 대화 스킬이 아니다. 이런 스킬들은 일상적 이 대화에서 그다지 쓸모가 없으며 오히려 잘못 사용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대화가 진정한 소통이 되려면 대화 스킬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원칙들이 더 중요하다.

말이 통하기보다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돼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대화라는 것이 ‘말’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화란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다. 말이란 마음을 주고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마음을 주고받기 위해 꼭 말씀씨가 좋아야 할 필요는 없다.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 센스다. 말 센스란 필요한 말을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이야기에 호응하면서, 상대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끌어내는 것이다.

(\* 내용을 다 따라 하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내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해 보자. 부부끼리 앉았으면 서로를 바라보며 당신이 고치면 좋겠다고

지적하면 좋다.

1.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는다.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바쁘다. 상대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나 나와 결부시켜 얘기한다. 이래서는 상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상대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상대가 주인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선생님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학식이 높거나 전문직일수록 무의식적 편견이 높다). 왜 사람들은 상대가 물어보지 않는 것조차 길게 설명하려고 할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대에게 충고나 조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고(통제병),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로부터 관심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다(관심병).
3.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상대에게 질문을 하라.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이며,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지, 어떤 영화를 재미있게 봤고,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가장 하기 싫은 것은 무엇인지. 상대에 대한 호기심의 표출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다. (예, 아니요의 답을 요하는 폐쇄형 질문은 대화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개방형 질문으로 상대의 생각을 듣는 질문으로 전환해야 한다.
4. 대충 아는 것을 잘 아는 척하지 않는다(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보지도 않은 여행지를 가 본 것처럼 말하지 말고 보지 않은 영화를 본 것처럼 말하지 말라. 그렇게 아는 척 하는 것이 상대를 곤경에 빠트릴 수도 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진짜로 부끄러운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다.
5.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다(대화는 말하는 것만 아니라 잘 들어주는 것이다. 존중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듣기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 듣기여야 한다. 수동적 듣기란 단순히 상대의 말에 응답하기 위해 듣는 것이고, 능동적 듣기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다. 상대의 말뿐 아니라 그의 어조와 몸짓도 살펴라.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6.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안테나를 세운다(대화에서 상호 간의 상황을 파악하여 반응을 살핀다). 대화하는 도중에 상대가 하품을 하거나 탄성을 피우는가? 혹은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상대는 지금 당신의 말을 지루해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가 수차례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는 것은 상대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7. 잡초 밭에 들어가 배회하지 않는다(부질없는 내용 잡담을 피한다). 대화에서 잡초 밭이란 불필요한 내용을 시시콜콜 떠들어대는 것이다. 잡초 밭에 빠지게 되면 대화는 중심을 잃고 부질없는 이야기들만 난무하게 된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라. 상대는 그 순간 잡초 밭을 태워버리고 싶을 것이다. 대화 도중에 상대의 실수를 잡아주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 "잠깐. 그런데..." 등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8. 머릿속의 생각은 그대로 흘러보낸다. 대화를 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생각에 사로잡힌다. '나라면 이랬을 텐데', '그땐 이랬어야지', '왜 그런 생각을 고집할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한다. 이것은 결국 상대의 말에 내 얘기를 끼워 넣고 싶은 본능이다. 그 본능을 흘러보내라.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
9.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다. 상대가 어떤 실수를 하면 우리는 그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불안하다.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지적한다. 하지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여러 차례 되풀이하면 반감이 생기는 역효과만 날 뿐이다. 실수는 지적해야 한다. 단, 딱 한 번만!
10. 이 얘기에서 저 얘기로 건너뛰지 않는다(대화를 나누기 어렵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우리는 대화 중에 인터넷의 링크를 누르듯 이리저리 대화의 주제를 바꾼다. 상대의 진지한 말조차 가벼운 뉴스처럼 취급하곤 한다. 이런 대화는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다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지금은 다른 중요한 일 때문에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고.
11. 고독의 시간이 공감력을 높여 준다. 하버드 대학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느끼는 능력이 고독을 경험한 후에 더 향상된다고 한다. 가끔씩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 더 충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고독의 시간을 가져라.
12. 말은 문자보다 진정성이 강하다. 우리는 말로 해야 할 때도 문자를 쓴다.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에는 문자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과 감각과 뉘앙스가 있다. 누군가와 좀 더 친밀해지고 싶다면 말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13. 편리함을 위해 감정을 희생하지 않는다(실수를 줄이기 위해 문자를 이용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통한 의사소통은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하다. 말로 하는 것보다 실수도 덜하다. 하지만 효율적이고 실수가 없는 소통이란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때로는 실수투성이에 뒤죽박죽이고 엉망인 의사소통이 가장 인간적이다.
  14. 말재주와 말센스는 다르다(소통전문가들은 말의 솜씨가 유창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말을 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의 달인들은 의외로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들의 말은 절제돼 있고 과도한 제스처도 사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들어주는 것에 능숙하다.
  15. 옳음 보다 친절함을 선택한다. 일상적인 대화의 목적은 옳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옳은 것은 없다. 나이와 연령과 성별과 국적과 인종에 따라 옳은 것의 기준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옳은 것을 찾기보다는 친절함을 베풀어야 한다.
  16. 바로잡지 못할 실수는 없다(사과가 불가능한 일을 존재하게 한다). 혹시 말을 뱉어놓고 미안했던 적이 있는가?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던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자. 바로 사과하는 것이다. 사과가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과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드는 유일한 대화법이다.

#### 결론

사람은 다 문제투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좋은 사람은 성화를 통해 이루어짐, 성화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말

왜: 모든 말에는 위력 있다.

이번 주에는 말의 위력,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생각하며 성령님의 파워로 나를 제어하는 것을 실천해 보자. 선한 말과 악한 말이 내 혀를 통해 나가지 않도록

특히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담은 성경책을 주셨다. 이것을 온 세상에 전달해야 한다. 우리의 혀를 통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